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살균기’ 세계 첫 개발 클리어원코리아

“1년만 버티자” 폐업 위기서 코로나로 대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하철역, 공항, 백화점, 마트, 병원 등의 대형 시설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에 살균기 부착이 보편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공항, 지하철역, 병원, 쇼핑몰 등에도 설치가 잇따르고 있다. 자가발전에 따른 자외선 살균 기술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이 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한 주인공이 한국 중소기업이다. 2015년 세계 최초로 이 제품을 출시한 클리어원코리아는 ‘코로나 특수’로 올해 45개국으로 수출을 늘리면서 매출이 작년 대비 100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촌세브란스 병원 에스컬레이터에 설치된 클리어원코리아의 핸드레일 살균기. 클리어원코리아 제공

“그동안 쌓은 기술력이야말로 1년만 버티고 폐업하지”고 다짐했다”고 회상했다. 클리어원코리아는 지난 2월 코로나 사태 확산 이후 전 세계에서 주문 물량이 쏟아져 ‘대박’을 맞았다. 지난 3월 경기 안양 공장을 증설해 월 3000대 생산에서 7000대 생산 체제를 갖췄는데도 주문하면 2-3주 뒤에야 제품이 인도될 정도로 공급 속도가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내 주요 지하철역은 물론 신촌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고려대병원, 인하대병원, 길병원 등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여의도 IFC몰, 광화문 D타워, 미래에셋센터원, 아케아 등에 설치됐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삼성화재 서초사옥, LG트윈타워, LG서울역·광화문빌딩, CJ올리브빌딩, KT광화문빌딩 등 주요 기업 사옥에도 설치됐다. 해외에선 영국 히드로 공항, 미국 휴스턴 공항을 비롯해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필리핀 등의 공항과 지하철역, 병원, 쇼핑몰 등에 잇따라 설치됐다. 조만간 일본 도쿄와 오사카 지하철역, 영국 런던 지하철역, 미국 뉴욕 지하철역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美·中·日 등에 19개 특허 출원 바이러스 100% 자외선 살균

45개국 공항·병원·쇼핑몰 설치를 매출 100배↑ ... 수출 70%

핸드레일을 잡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넘어지는 사고를 겪은 것이 제품 개발의 계기가 됐다.

그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인체에 무해하고 영구적인 살균기능 장치를 연구하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자외선 UV-C 효과에 주목했다.

또 우연히 방문한 자전거 매장의 자가발전식 조명에서 힌트를 얻은 뒤 2014년 전선으로 연결하지 않고도 작동할 수 있는 자가발전식 에스컬레이터 자외선 살균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후 한국은 물론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에 총 19개의 특허를 출원했다.



◆사채까지 빌리다 ‘대역전’ 이 회사는 제품 출시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전인 작년 말까지 5년간 ‘약속’을 거뒀다. 제품 개발 비용 20억원에 인건비 등 20억원의 빚을 추가로 지고 고금리 사채까지 동원했던 탓이다. 직원들에게 6개월가량 월급을 주지 못해 지난해엔 직원 11명 중 한 명만 남고도 두 되자했다. 대형 빌딩 냉난방공조 유지 보수업체를 운영하던 김 부사장의 사촌 형 김 사장이 거금을 투자하며 회사를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김 사장은 “당시 너무 어려워 전 세계 특허를 모두 팔 계획도 세웠다”며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아트월 제조업체 아니

고객 취향 살린 맞춤형 입체벽지

아트월(예술형 벽면) 전문기업 아니(ANI)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벽’을 생산하는 회사다. 맞춤형 벽이 아니라 매장의 업종과 성격, 이미지 등을 고려해 만들어지는 ‘맞춤형 입체벽지’이기도 하다.

최대한 아니 대표는 “과거 실내캠핑장 등의 개인 사업을 할 때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모델이 없어 상당히 애를 먹었다”며 “확실화한 디자인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독창성을 살려 인테리어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겨냥해 아니를 설립하게 됐다”고 했다.

아니의 모든 아트월은 주문제작형이다. 소비자 취향에 따라 신문 형태로 꾸며주기도 하고, 서재 형태로 만들어 주기도 한다. 기본으로 깔리는 벽면 디자인에 시계나 액자,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등을 더해 입체적인 효과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가정용으로 쓰는 소형 아트월이 30만원 이상이고, 카페 등 업장에서 쓰는 대형 아트월이 500만원 이상이다.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수요는 꾸준하다. 특히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개인매장 점주들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최 대표는 “아니의 아트월은 단순한 인테리어를 떠나 그 매장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술품”이라며 “SNS 이용자가 좋아하는 감성적인 연출이 두드러지다 보니 점주들 반응이 좋다”고 했다.

아트월 소유권은 각 점주들에게 있다.



신문 형태·서재 형태 등 다양한 개인 매장 점주 주문 잇달아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가 해당 아트월을 마음에 들어 해 같은 디자인을 원할 경우 점주는 이 소비자를 아니에 연결해 준다. 아니는 해당 아트월 연출용 교보재를 소비자에게 대신 판매하고,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다.

아니는 지난해 2월부터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국내에서 흔치 않은 아트월 전문기업이라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인천 남동타워 시민용 카페 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며, 곧 인천 소재 포구 예술문화 복합 공간 기획 사업에도 들어간다”고 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임상 임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19일 서울 역삼동 사옥에서 흡입형 코로나19 치료제 ‘UI030’의 임상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UI030은 이 회사가 전식 치료제로 지난 6년 동안 개발해온 약물이다. 기관지 확장제인 아포모테롤과 스테로이드인 부테소나이드를 복합해 코로나19 치료용 개량 신약으로 개발하고 있다. 고려대 의대 생물안전센터 연구팀은 최근 사람의 폐세포를 대상으로 한 항바이러스 효능 평가에서 UI030이 대조군으로 삼은 천식치료제 시클레소나이드 대비 5-30배의 항바이러스 활성을 보인 것을 확인했다.

아포모테롤과 부테소나이드 모두 항바이러스 효과를 갖고 있으며 부테소나이드는 항염증 작용도 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와 감염으로 인한 폐

Table with 2 columns: Item, Description. UI030 details.

렴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UI030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천식 치료제로 임상 1상을 허가받고 임상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치료제로서는 국내외 필리핀에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임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연웅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중앙연구소장은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 임상 12상을 면제받고 연말 또는 내년 초 임상 3상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UI030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독자 개발한 전용 기구에 약물을 넣어 환자 스스로 흡입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식약처,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 허가 취소

3상 결과 보고서 제출 못해 조건부 허가 기간 만료 통보 삼성제약 “집행정지 신청할 것”

삼성제약의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가 허가 취소됐다. 5년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내는 조건으로 허가받았는데 환자모집 등이 늦어지면서 정해진 기한 안에 보고서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체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삼성제약은 19일 식약처로부터 리아백스(GV1001)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통보받았다고 발표했다. 리아백스는 췌액스엔카겔이 개발하고 삼성제약에서 판권을 갖고 있는 췌장암 치료제다. 췌액스엔카겔은 이 약을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등으로 개발하고 있다.

삼성제약은 5년간 국소진행성·전이성 췌장암 환자 148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식약처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조건으로 2015년 3월 리아백스 품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임상 조건에 맞는 환자를 제때 모으지 못해 종료 기간이 늦어졌다. 올해 3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데이터 분석 작업 등에 시간이 걸려 마무리하지 못했다. 삼성제약은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뒤 올해 5월 148명의 환자에게 임상약을 투여했다는 임상 종료보고서를 냈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에서 제출한 조건부 허가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리아백스 중간분석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는 삼성제약에 “신

규 투약을 신중히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삼성제약은 리아백스를 판매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업체 측은 20일 법원에 허가 취소 처분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통계처리와 보고서 작성 등 후반 작업만 남은 상황에서 식약처가 허가 취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마무리 작업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업체 관계자는 “임상시험을 하는 동안 매년 이상 반응과 부작용에 대한 정례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며 “이 과정에서 약물로 인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약 유효성과는 무관한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상사중재 변호사 비용 중기중앙회가 지원해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기업과의 거래에서 피해를 당하는 중소기업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상사중재원과 19일 중재 신청 금액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리인 선임 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 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기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실제 국내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에서 수요가 없다며 갑자기 주문을 취소하거나, 물품 대금을 송금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재판 대신 중재인 판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29초영화제 with Coffee | 커피와 함께 하는 모든 이야기. Includes details about the festival, submission rules, and contact information.